

인간은 언제부터 나무로 집을 지었을까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전의 고대인이 나무를 가공해 건축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스푸트니크' (sputnik.kr)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대학교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일 조사 보고서를 내고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약 47만 6,000년 전 통나무를 소개했다. 가공된 이 통나무는 인간의 조상이 만든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의 일부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통나무는 아프리카 남부 잠비아의 칼람보 강의 바닥에 잠들어 있었다. 칼집을 넣은 통나무는 모두 5개로 초기 인간속 그룹이 목재 가공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칼집을 넣은 통나무를 겹쳐 구조물을 만든 흔적. 사진=리버풀대학교

목조건물의 일부인 통나무 조각은 원래 1950년대 칼람보 폭포 상류의 바닥에서 건져냈다. 최근 기술을 동원해 연대 측정에 나선 연구팀은 통나무들이 대략 47만 6,000년 전 가공됐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조사 관계자는 "칼람보 강 유적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발달하는 연대 측정법에 따라 점

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중"이라며 "통나무들은 빙하기로 잘 알려진 중기 갱신세(78만 1,000~12만 6,000년 전) 인류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통나무는 강바닥에서 석기와 함께 발견된 2개와 강의 수위보다 높은 점토층 안에서 나온 3개로 구성된다"며 "이들 나무들은 계속 상승하는 지하수면 덕에 수십만 년 동안 원형을 보존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칼람보 폭포에서 출토된 가공된 작은 통나무는 유럽이나 중국에서 발견된 약 40만 년 전 수렵채집 도구와 매우 흡사하다. 다만 목조건물을 구성할 정도의 가공된 통나무가 여럿 발견된 사례는 아프리카나 유라시아의 다른 유적에서는 유례가 없다.

조사 관계자는 "석기와 출토된 통나무는 길이 141.3cm로 큰 나무줄기에 부착돼 있었다"며 "위쪽 통나무 바닥과 아래쪽 줄기 윗부분 양쪽에 깔고 칼집을 낸 흔적이 남았으며, 이 때문에 두 가닥이 딱 들어맞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목조건물은 홍수를 막기 위한 건축물의 기초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홍수가 정기적으로 일어나 물바다가 되는 일을 겪은 인류의 조상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지성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온 좋게 원형을 유지한 목재가 발견된 덕에 중기 갱신세에 살았던 인류 조상의 지성은 물론 삶의 양상을 새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중기 갱신세 칼람보 폭포 주변에 정착한 인류 조상들은 나무를 가공하는 기술이 없다고



▲ 인류의 조상이 만든 목조건물의 통나무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는 공동 연구팀. 사진=리버풀대학교

여겨졌다.

조사 관계자는 "이번 발견은 약 47만 년 전을 살았던 인류 조상이 생각보다 영리했고 창의력과 기술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나무는 석재와 달리 대부분 풍화되거나 썩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인류 조상들의 문화나 생활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무료 3D 디자인 • 무료 견적 • 20년 경력



CUCKOO 문의 환영

가을이벤트

9월 달! 한달간
부엌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계약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급 쿠쿠 비데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 계약금액 만불 이상

CUCKOO



캐비닛 / 카운터 탑 / 마루 / 타일 / 욕조 / 샤워 도어 / 창문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캘리 키친 앤 베쓰가
리팔마에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5438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714-206-7366

www.calikitchenbath.com

calikitchenbath@gmail.com

Licensed, Bonded and Insured St. Lic. #1073686



CALI KITCHEN & BATH
HOME RENOVATION